

"국책 개발사업 사전 공론화"

[연합뉴스 2006-05-02 12:05]

대통령자문 제4기 지속가능위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주요 국책 개발사업 등을 초기부터 공론화해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새로 선임된 지속가능발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제4기 위원회는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라는 지속가능발전 이념 아래 2008년 5월까지 임기 2년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연안 및 해양, 에너지 분야의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고 하구 환경 관리, 하천 복원 방안, 대기·교통·에너지 통합 수요 관리 정책, 자원 순환형 산업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4기 위원회는 특히 정책자문과 갈등조정 기능을 분리하고 갈등조정을 전담할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 활동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계부처 장관 등 1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중요 사안에 대한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수시로 열어 `배심원적' 자문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 각국에 지속가능위원회(NCSD) 설치를 요청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조직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2000년 1기 출범을 시작으로 정책자문 활동을 해 왔으나 시행 초기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위원들이 대거 탈퇴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제4기 지속가능발전 위촉위원은 다음과 같다.

▲ 김정욱 서울대 교수 ▲ 김재욱 소비자문제 시민의모임 회장 ▲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장
▲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 박영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장 ▲ 박오순 민변 환경위원장
▲ 박종식 삼성지구연구소장 ▲ 손양훈 인천대 교수 ▲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 ▲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윤순진 서울대 교수 ▲ 이은희 서울여대 교수 ▲ 이진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장 ▲ 장재연 아주대 교수 ▲ 한경구 국민대 교수 ▲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 황희연 충북대 교수

ksy@yna.co.kr

(끝)